



중국 베이징에서 10월 22일 열린 제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 본회의에 참석한 한국 중국 일본의 대표 스님들. 앞줄 왼쪽부터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혜 스님, (한사람 건너)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중국불교협회장 일성 스님, 일본대표단장 고바야시 류쇼 스님.

우호증진 속 주도권 경쟁 치열

한·중·일 불교교류 10년 평가·전망

‘황금유대(黃金紐帶)’ 이번 대회기간 동안 사용된 한중일 3국 불교 교류 10년을 함축하는 말이다.

‘우호·협력·발전’을 주제로 시작한 한중일 불교교류는 1993년 10월 당시 중국불교협회장 조박초 거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94세를 일기로 지난 2000년에 타계한 조 회장은 중국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며, 혁명원로로 중국공산당 서열 4위까지 올랐던 실력자였다. 그의 제안으로 95년 북경에서 첫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가 열렸다. 역사적 근원이 하나인 한국·일본·중국불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단절된 불교전통을 복원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와 3국의 이해가 일치한 결과였다.

96년 9월 서울대회, 97년 10월 나라-교토 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종교를 통한 3국의 우호협력 분위기도 고조되었다. 그러나 98년~2000년 까지 한국 대표종단 조계종이 분란에 휩싸이면서 대회개최가 어려워졌다. 대신 이 기간 동안 ‘한중일 불교교류위원회’를 열어 3국간의 교류 실무를 담당할 조직 강화에 힘을 쏟았다. 2000년 10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평화기원법회’와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높였다. 한편으로는 한·중 두 나라는 불교선승제협단의 교차상호방문을 시작했다. 97년 제3차 대회에서 ‘양국 불교의 우호·협력 증진’이라는 취지로 결의돼, 이듬해 한국측 수행단이 중국을 처음 방문한 것이다. 올해 4회를 맞았다.

2001년 10월 북경에서 다시 재개된 3국 교류대회는 ‘불교와 환경보전’을 주제로 열려 현실문제에 대한 불교의 역할과 참여를 제기했다. 이때부터는 ‘우호교류대회’와 ‘교류위원회’의 고도화 치러진다.

올해 10년째를 맞고 있는 3국의 우호 교류의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오랜 역사를 같이한 3국의 불교가 상호 동질감을 회복한 점이다. 또 ‘3국 교류위원회’ 같은 제도적 장치를 갖춰 인적 교류확대의 계기를 마련한 점도 주목할만한 성과로 꼽힌다.

이런 일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 북경대회는 ‘세계불교포럼’ 창설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올랐다. 포럼은 한중일은 물론 아시아 불교권 국가를 비롯한 소·대승·출·재가, 모든 계층이 참가해 언어와 국경의 장벽을 넘어 교육문화, 자선구호, 환경보존, 전쟁반대, 평화수호 등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취지로 중국불교협회와 ‘3안(홍콩, 마카오, 대만)’ 불교계가 처음 제안한 것이다. 물론 이런 배경에는 ‘세계불교도우회’나 ‘세계불교승가회’ 같은 태국, 대만, 일본 등이 주도하는 단체들을 견제하고 세계불교를 중국이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또 불교를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3안’을 자연스럽게 통합 시키겠다는 속셈도 한몫하고 있다.

지난 10월 22일 교류위원회의 집적적인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국대표 홍화·중국대표 성취·일본대표 고바야시 스님 등 각국 대표들은 포럼 창립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한·일 운영위원들은 포럼창립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분명히 했다. 결국 홍화 스님의 제안으로 각국 대표들은 추후 세부적인 실무는 논의하기위한 간담회를 2005년 3월 제주도에서 갖기로 하고 이번 회의를 마무리 했다.

중국 측 대표 성취 스님은 이날 한국 일본 대표들의 견제를 의식한 듯 “사업을 추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한국과 일본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포럼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좀더 시간을 두고 각 나라의 입장과 상황에 맞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 한국측 단장으로 대회에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세계불교포럼의 창립을 비롯해 공식적 활동은 반드시 3국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매 2년 씩 한중일이 상임대표를 번갈아 맡아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교류 10년을 맞은 한중일 불교계가 ‘세계불교포럼’의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통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적 교류 확대... 상호 동질감 회복 세계평화기원법회 개최 큰 성과

급성장하는 중국불교 배경과 전략

“불교를 국교로” 정부, 불자 양성 ‘심혈’

“한중일 교류 10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다. 93년 조박초 거사의 제안 당시만 해도 중국불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공산화 50년 동안 문화혁명까지 겪은 탓에 불교는 꺾이기만 남은 탓이다. 그러나 적어도 외형적으로 지금 중국불교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물론 아직까지도 중국불교의 깊이는 여전히 바닥이 얇다. 이번처럼 일방적인 ‘세계불교포럼’ 창립 과정도 역시 중국불교의 성장을 드러낸 결과다.” (조계종 중앙총회위원장 지하 스님)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에 참석한 중국 스님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전까지 스님을 현재의 3만 명에서 30만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중국 불교는 비의(飛翼)하고 있다. 2002년부터 중국불교협회는 종교국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만큼 위상이 달라진 것이다. 문화계 관리인 취급을 받던 중국 스님이 10년 사이에 2500명에서 3만 명으로 늘었다. 사찰의 운영도 승려가 직접 한다. 중국 불교는 자신들의 원류를 대승불교의 종주국이 된 한국에서 찾고 싶어 한다. 중국 불교에 있어서 한국불교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큰 존재다.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중국불교의 행보가 너무나 공격적이다. 이번 분위기는 10월 24일 회랑옥(回廊玉)부총리를 만났을 때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올림픽이전 스님 30만·신도 5억명 목표 불교문명 중심국가 부각시키기도 “행보 너무 공격적” 패권화 우려 시각도

“중국정부는 기독교문명을 앞세운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에 대항하는 불교문명의 중심 국가로 중국을 부각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민족통합, 사회갈등해소, 전통문화복원, 불교를 통한 정신문화의 세계 제패가 그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다. 얼마전 방한한 왕유 종교국 부국장도 이런 의지를 밝히면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관광부 비경정 주무실장)

명의 인파에 떠밀려다녀야만 했다. 넘쳐나는 불교인구에 입을 다물 수 없었다. 또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참배한다는 임제종 계열의 상해 육불선원에서는 젊은 방장(주지)의 나이에 적잖이 놀랐다. 1999년 29세에 방장이 된 각성 스님은 문화혁명 이후 단절된 불교의 전통을 잇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 수행전통이 살아있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한·중 불교계의 협력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다.

최근 중국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천태종 교무부장 춘광 스님은 한국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세계불교포럼’ 창립을 통해 동북아권 대승불교의 세계화를 노리는 중국불교의 성장에 놀라면서도 이런 배경에 종교 외적인 정부의 정책적 목적이 앞서는데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춘광 스님은 “오랫동안 도제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점은 정제하고 있는 한국불교계가 보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대승불교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불교의 국제화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승려수는 3만명 가량. 중국정부는 정책적으로 올림픽이 열리는 2008년 이전까지 승려수를 25만~30만 명까지 늘리고 신도도 지금의 2배인 4억~5억 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종교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세워 종교(기독교)활동을 규제해온 중국정부로서는 개방이 본격화될 올림픽이전에 불교를 국교로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大韓民國 寺刹은 悠久한 歷史와 燦爛한 文化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사찰 Home page 開設로 많은 衆生을 구제하고 부처님의 가피를 세계에 전파하십시오. 貴人이 最先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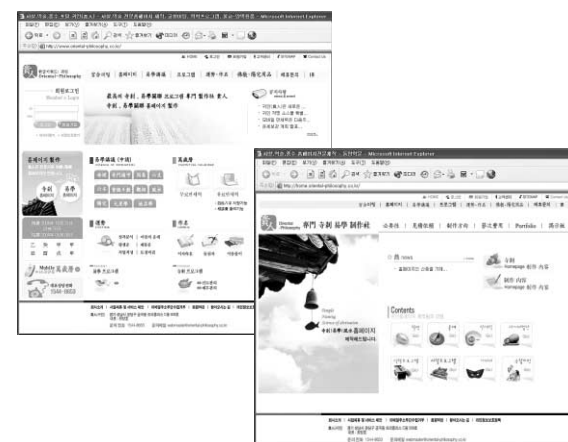
귀인(貴人)은 最高의 寺刹Home page를 만들어 드립니다.

貴人 Oriental-Philosophy 專門 寺刹 易學 制作社

귀인의 홈페이지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차원 높여드립니다

貴人 寺刹 Home page 特別 行事期間 (10월 27일~11월 11일) 特典

1. 最新 업그레이드된 貴人 作名 3.0 Iset 無料支給
2. Mobile 萬歲曆 Iset 無料支給
3. 貴人 有料 萬歲曆 3년 使用權 無料支給
4. 土亭秘訣, 黨舍柱, 오늘의 운세, 觀相, 꿈해몽 3년 無料링크
5. 日辰 달력 무료링크
6. 무료 이름풀이 3년 무료링크
7. 貴人에서 開發되고 있는 最高의 寺刹프로그램 (신도, 재무) 50% DC된 價格에 提供
8. 마지막으로 寺刹 Home page 계약시 13% DC해 드립니다.



야후(yahoo)에서 귀인, 네이버(naver)에서 동양학문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www.oriental-philosophy.co.kr 한글인터넷주소 : 귀인, 동양학문, 신도관리, 사찰관리, 기문, 기문문답, 사주대전, 육효, 자미두수, 양택, 오운육기

● 대표전화 : 1544-8653 대표 : 최 양호 H.P : 019-217-3505

